

### '준농림지 개발 규제' 입법 예고

### 300만평 개발 불투명... 2조 5000억 묶여

정부의 준농림지 개발 규제로 주택업계에 초반이 걸렸다. 건설교통부가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어서 주택업체들이 보유 중인 300만평의 준농림지 개발이 불투명해졌다.

● **정부, 난개발 막기 위한 조치** 건교부는 국토의 계획적 이용과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이어 17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2005년부터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엄격히 제한하고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지금은 10만㎡(약 3만3000평) 이상인 준농림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준농림지→준도시지역

락지구)을 통해 200%의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우더라도 150%의 용적률밖에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립 규모를 10만㎡에서 30만㎡(약 9만 1000평)로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개발업자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내도록 했다. 대규모 개발을 유도, 무분별한 나홀로 아파트 건립을 막고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미 확보된 준농림지에 대해서는 2004년 말까지 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15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05년 이후에는 준농림지의 상당부분이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

● **주택업체, "이대로는 사업 못한다."** 주택업계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규모를 10만㎡로 완화하는 동시에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업계는 "이미 확보한 준농림지를 개발하지 못하면 경영압박과 주택공급 감소,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주장했다.

김홍배(金弘培)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전무는 "300만평의 준농림지 구입에 들어간 땅값 1조원과 금융비용 등 1조 5000억원이 묶인다."며 "업계의 경영압박과 민영 아파트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환경단체 규제 강화 요구** 건교부는 마구잡이 개발을 막고 기반시설을 갖춰 국토의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내용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2005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아파트 건립을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류찬희기자 chani@kdaily.com**

### 뉴스라인

#### 월드폰 플러스카드 세트 출시



KT는 마스터카드와 제휴,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기념 전화카드인 월드폰플러스카드 세트를 17일 내놓았다. 한 세트에 5만원으로 3000원권 5장, 5000원권 5장, 1만원권 1장이 들어 있다.

#### 모바일게임 6종 계약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인 게임빌은 국내 업체로는 처음 세계적인 휴대용 제조업체 노키아와 모바일게임 6종을 제공하는 계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게임빌이 노키아 휴대용 응용으로 개발한 게임은 '베네치아 대상인', '라스트 워리어' 등으로 오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E3게임전시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 '두타 2002 피버파크' 개장

두타는 서울 동대문구 본사 야외광장에 '두타 2002 피버파크'를 문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곳에는 월드컵 공식 축구공인 '피버노바'의 대형 조형물과 월드컵 전시관, 사진 촬영공간이 들어섰다. 두타는 월드컵 기간에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 틈새 노린 가전제품 붐물

'차별화만이 살 길이다.' 가전업체들이 틈새시장을 노린 기능성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반 가전제품의 수요가 한계에 달하자 특수 계층을 노린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삶는 세탁기를 출시했다. 옷을 삶아 빠른 주부들의 불편함을 고려한 제품이다. 세균 저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인, 환자가 있는 가정이 주요 타깃이다. 올해 10만 대 판매를 목표로 삼았다.

#### 삶는 세탁기·바하는 전자레인지



삼성전자는 최근 삶는 세탁기를 출시했다. 옷을 삶아 빠른 주부들의 불편함을 고려한 제품이다. 세균 저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인, 환자가 있는 가정이 주요 타깃이다. 올해 10만 대 판매를 목표로 삼았다.

독신자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전자레인지도 나왔다. 도자기 밥 공기에 쌀을 넣고 12분간 가열하면 밥이 되는 제품이다. 한번에 두 공기 분량까지 밥을 지을 수 있어 독신자나 신혼부부에 알맞다.

삼성전자는 최적의 조건에서 연인을 보존하는 와인 냉장고를 연 말에 출시한다. 와인이 진동에 민감한 점을 감안해 아날로그 방식의 컴프레서 대신 반도체로 온도를 유지, 미동조차 없었다.

● **강홍식기자 chungsik@kdaily.com**

### 철강업계 '핫코일 전쟁' 재연

#### 포스코·제조업체 가격인상 싸고 갈등심화

냉연강판과 냉연강관 소재인 열연강판(핫코일)의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포스코와 냉연강판 제조업체들이 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달 계약분부터 냉연강판 가격을 38만 9000원에서 40만 9000원으로 올렸다. 냉연강판 소재인 열연강판 가격도 28만 5000원에서 30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가뜩이나 철강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냉연업체들은 "냉연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개선을 기대했으나 냉연과 열연 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냉연강판을 만들어 봤자 남는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냉연업체들은 포스코가 냉연강판 가격 인상을 최소한 핫코일보다 높게 책정하기를 기대했다. 그럴 경우 비슷한 수준의 냉연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더욱이 냉연업체들은 핫코일 주요 수입국인 일본 철강업체들로부터 오는 하반기 이후 핫코일 가격을 현재 t당 210달러에서 250달러로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아놓은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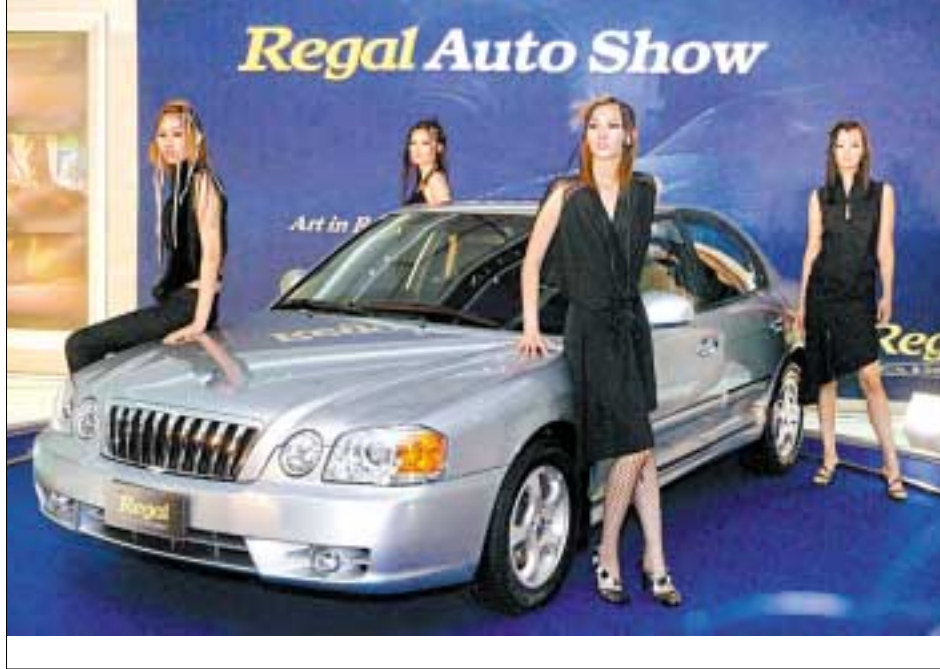
따라서 하반기 이후 일본에서 핫코일을 수입하려면 t당 250달러에 관세·운반비를 더한 270달러를 내야 한다. t당 가격이 34만 3000원(1달러 1270원 기준)에 이른다.

냉연업체 관계자는 "핫코일과 냉연강판은 10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일부업체들이 핫코일 수입가격을 올리면 포스코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냉연 가격 인상으로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냉연가격을 추가로 올리지 않을 경우 국내 냉연업체들은 하반기부터 수출 판매를 감수해야 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포스코는 "냉연강판의 경우 전반적인 공급과잉을 빚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더이상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며 "냉연업체들의 요구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답답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전광삼기자 hisam@kdaily.com**



가리갈자동차개발연구소 입구정동 영업사원에서 선보인 중형 세단 '리갈' 신차발표회에서 패션모델들이 다 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종원기자 jongwon@kdaily.com**

#### 원격 개사로 공급기 출시

'장시간 집을 비워도 개 걱정은 마세요.' 직장이나 학교 등 외부에서도 집안의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 나왔다. ㈜썬리비시스템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연결, 집에 있는 먹이통에서 개 사료가 나오게 하는 원격기 애완동물관찰 및 먹이공급 시스템 '펫와치' (사진)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펫와치에는 화상 카메라가 달려 있어 실



제로 먹이를 먹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펫와치에는 애완동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의 활동 모습은 홈페이지(www.mypetwatch.com)에서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면 볼 수 있다. 사료가 나올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해 개를 먹이통으로 유인한다. 이른바 동물의 조건반사를 이용한 것이다. ● **강홍식기자**

#### 정부, 보복권리시한 3년 연장 美와 합의

정부는 미국의 철강 셰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는 달리 일단 보복권시한을 유보하고 보복권리 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미국과 합의,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17일 통보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통보와 관련, 미국과의 보상협상을 계속하고 관세청이 정지를 통한 보복조치 관리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 협정상 관세청이 정지품목 리스트를 WTO에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셰이프가드 발동일 이후 90일 이내에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게 돼 있지만 당사국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고 보복권리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협상을 통해 보상을 받는 데 주력하기 위해 보복권리 시한을 연장했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다자적 해결방안도 계속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보상협상 차질을 대비해 미국 제품에 대한 우리 측 관세청이 정지 품목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앞서 미국의 철강 셰이프가드로 인한 우리측 피해와 관련, 미국 정부에 지난 9월 서한을 보내 일부 다른 수출품목의 관세를 면제하고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EU는 지난 14일 관세 양허정지 품목 리스트를 이미 WTO 상품이사회(CTG)에 제출했으며 일본도 WTO 절차에 맞춰 보복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김태균기자 windsea@kdaily.com**

**Oksan**  
TEL: 043-526-4821

# 하나쯤 있으면 참 좋은 퍼스널좌식의자

## 슬림형이라 착석감이 달라 편안합니다

자리가 편안하면 매출도 단금 그자도 높아집니다. 좌식공간이 있는 업소라면 디자인은 세련되고 의자는 더욱 편안한 퍼스널좌식의자로 한번쯤 고객 서비스를 높여보십시오. 단골 고객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06-퍼스널2

● 슬림형 좌식의자리 착석감이 뛰어납니다

● 더욱 넓어진 좌판으로 편안함이 다릅니다

● 분리형 조립식이라 보관이 편리합니다

좌식의자  
**퍼스널**

★ 퍼스널좌식의자 판매처 강남점 565-6570 문신점 3453-0386 미포점 704-5994 부산점 (051)627-5180 울산점 (052)249-4945 대구점 (053)656-4495 광주점 (062)512-2366 대전점 (042)221-4123 천안점 (041)577-2549

● 소비자상담실  
**080-222-9200**